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오르나… 조원태 지분 '역전' 관측

호반그룹, 최근 추가장내 매수
한진칼, 관련 내용 미확정 공시
한진그룹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


호반그룹 사옥 전경.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호반그룹의 지분 경쟁이 벼랑 끝 승부로 치닫고 있다. 호반그룹이 추가 장내 매수를 통해 조 회장 측 지분을 넘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한진칼은 관련 내용을 미확정 사항으로 공시하고 재공시 시점을 예고해 실제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약 20.6%를 소폭 웃도는 수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0.42%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측의 지분 격차가 약 3개월 만에 역전됐다는 것이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칼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다음 달 1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 여부는 추가 공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가 2023년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팬오션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등 꾸준히 지분을 확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조 회장 측 지분은 20.57%, 호반그룹은 19.83%였다. 7월 장내 매수로 호반그룹 지분이 20.15%까지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추가 매수로 양측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위와 한진그룹 경영권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6.05%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조 회장 측은 델타항공(14.90%)을 비롯해 LX판토스·GS리테일 등 우호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항공도 최근 한진칼 지분을 취득해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인 주주로 거론된다. 호반그룹 역시 현재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어 이사회 진입이나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우호 지분에 대해 "충분히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경영권에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향후 양측의 추가 지분 매입 움직임이다. 공정위는 지분율뿐 아니라 주주 간 관계와 임원 겸임, 기업 간 거래·자금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지배관계 변화를 판단한다. 최대주주 지위가 실제로 바뀌더라도 우호 지분과 이사회 구성 등 경영권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맞춤형 HBM 개발 확대 움직임

미주총괄 신설… 안현사장 초대 수장
빅테크 등 차세대 시스템 로드맵 대응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이 지난달 14일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키노트 스피치에서 'AI 시대, 메모리 혁신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을 이끌어 온 안현 사장을 미주총괄에 선임했다. 미국 빅테크와 AI 칩 설계 단계부터 협력해 고객 맞춤형 HBM 개발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급 미주총괄을 신설하고 안 사장을 초대 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사장 후임 개발총괄에는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이 선임됐으며, 미래기술연구원장도 겸임한다. 회사는 미주총괄을 통해 현지 빅테크 고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리더십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 규모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지역별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재 판매법인의 외부 고객 매출은 84조5648억원으로 연결 매출의 64.1%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고객 소재지가 아닌 판매법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안 사장의 미주총괄 선임과 맞물린 사업 방향은 고객 맞춤형 HBM 개발이다. 맞춤형 HBM은 고객사 AI 칩의 구조와 작업 특성에 따라 베이스 다이(base die)와 패키지 등을 조정하는 제품이다. AI 시스템마다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 전력·발열 조건이 다른 만큼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메모리 사양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공개한 기술 자료에서 고객사의 차세대 시스템 로드맵에 맞춰 메모리 사양과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을 설계 초기로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베이스 다이에 TSMC의 첨단 로직 공정을 적용하는 등 메모리와 로직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베이스 다이와 패키지 설계가 고객별 요구에 맞춰 고도화되면서, 메모리 업체의 역할도 완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사 시스템 설계와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고객사 자체 AI 칩 개발 확대도 맞춤형 메모리 수요와 맞물린다. 대만 IT 전문매체 디지타임스(DIGITIMES)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7년 고성능 클라우드 AI 가속기 출하량을 2595만1000대로 전망했다. 자체 설계 주문형 반도체(ASIC)는 1526만2000대로 전년보다 110.9% 증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출하량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도 고객 맞춤형 메모리 설계 사례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 자체 메모리 컨트롤러를 HBM 베이스 다이에 통합한 맞춤형 메모리 아키텍처 'NVHBM'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이 설계로 표준 HBM4E보다 메모리 대역폭을 최대 30% 높이고 전력 소비를 15% 줄이는 한편, AI 가속기(XPU)의 연산 다이 면적도 최대 25%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엔비디아는 아마존의 안나푸르나랩스가 NVHBM 개발에 첫 협력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표준 HBM 공급 확대도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4분기 HBM4 출하량과 매출이 HBM3E를 넘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사장은 지난 4월 TSMC 기술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표준형 HBM을 공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고객의 특정 니즈에 맞춘 커스텀 HBM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가동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열린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 가동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 두번째부터)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3분기 성장률, OECD 중상위권 유력

10위권 진입 가능성… 4분기 관심집중

우리나라의 성장률 호조세가 3분기 주요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2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16곳의 올해 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치가 취합됐다. 한국은 중간순위 2위에 올라 있다. 올해 1분기 2위라는 성적을 낸 뒤 2분기 주춤(19위)했지만 3분기에 다시 10위권에 들 가능성이 커졌다.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은 1.0%로 아일랜드(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 외 발표를 마친 나라들은 직전분기 대비 역성장이 2곳(프랑스·리투아니아)이고 보합(0.0%) 1곳(이탈리아), 0.1~0.9%가 11곳(미국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반도체와 수출 호황기의 여세가 OECD 비교에서도 톡톡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 아래로는 멕시코 0.9%, 미국 0.8%, 네덜란드 0.6%, 스웨덴 0.4%, 캐나다 0.3%, 독일 0.2% 등이다. 1~2주 내 일본과 영국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비교에서도 중국(1.2%)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고성장을 지속 중인 인도·인도네시아 등이 집계에 포함되면 순위는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올해 3개 분기(1.8%·0.6%·1.0%, 모두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합산한 수치가 3.4%에 달한다. 이 역시 아일랜드(7.9%)에 이어 2위다. 비교대상 16개국 가운데 현재 3개 분기 합계가 2% 이상인 곳은 멕시코(2.0%)·미국(2.0%) 포함 4개국뿐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4분기 수치가 관심을 크게 끌게 됐다. 그 결과에 따라 올해 GDP 증가율(전년대비)이 3%대 초반, 중반, 아니면 후반이냐 등으로 갈린다.

한편, 3분기의 경우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2분기 중위권(공동 19위)에 그쳤던 영향에 그 다음 순조로운 반등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1분기 1%대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했다. 중동발 유가 폭등의 영향이 컸다. 이어 2분기엔 총회원국의 4분 1이 넘는 10개국이 1%대 성장률을 보였다. 3분기 1%대 국가 수에 따라 우리나라 순위 등이 가려진다. OECD 회원국 중 개도국 대부분의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증권사, 개인투자자 위한 징검다리용 상품 선봬

›› 1면 '주식 판 돈 다음날'서 계속

유관기관들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일정을 잡았다. 거래소·예탁결제원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증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을 끝내고, 이후 최소 6개월간 시장 전체가 함께 통합 테스트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징검다리용 상품도 선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2일, 키움증권이 오는 20일 먼저 출시한다. 금리는 증권사별로 출시 때 공지한다. 유관기관은 투자자당 이자가 25% 정도 줄고, 취급 증권사를 12곳으로 늘리면 투자자 전체 이자가 연 15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봤다.

외환당국은 지난 7월 외환시장을 평일 24시간 체제로 바꿨고,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역외 원화결제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등은 오는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하고, 내년 1분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가동한다. 로드맵 초안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은 12월 18일까지 수렴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